나주, 2026년 하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26~6월 5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나주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다도면 철쭉꽃밭 가꾸는 모습 /나주시 제공

전남 나주시가 취업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6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이며 사업 기간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이다. 모집인원은 총 22명이다.

모집 분야는 다문화 가정 돌봄사업, 원도심 관광지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유아숲 체험 보조원 사업 등 9개 사업이다.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3~8시간 근무로 2026년 최저임금(시간당 1만 320원), 주·월차수당, 간식비가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나주 시민이다.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내이고 가구 재산 합계액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선발 결과는 소득·재산·기타 자격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최종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강동렬 미래전략산업국장은 "장기 실업자와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성택 기자

담양문화예술포럼 「담양 로컬리티, 힙하게」 개최

담양군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6월 26일(금) 오후 2시 해동문화예술촌에서 2026 담양문화예술포럼 「담양 로컬리티, 힙하게」를 개최한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올해 포럼은 다양한 로컬 콘텐츠와 지역 사례를 바탕으로 담양 안에서 새로운 관계와 활동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된다. 포럼은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제 「담양의 힘함을 가치로 만드는 플레이스 브래케팅」으로 시작된다. 이어지는 발표에서는 조권능 ㈜지방 대표, 박경아 ㈜세간 대표, 권오상 ㈜퍼즐랩 대표의 다양한 로컬 브랜딩 사례가 소개된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시설재배 농가 현장 지원 나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1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최근 지역 내 파프리카 시설재배 농가를 찾아 일손 돕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파프리카 재배 하우스 내 배지 재사용을 위한 재배환경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배지 주변에 발생한 잡초와 잔재물을 제거하고 재배시설을 정비하며, 다음 작기에도 배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탰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 실시

'배회하는 치매환자 찾아주세요!'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 실시 사진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은 최근 치매안심마을인 군서면 보라경로당에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치매환자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귀가를 돕는 대응방법을 익히기 위한 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치매환자 실종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실제 상황 발생 시 지역사회의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훈련에는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군서면사무소 등 민관 관계자와 마을 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하여 ▲치매환자 실종 신고 및 접수 ▲수색 및 추적 ▲발견 및 인계 등 전 과정을 실제 상황처럼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치매환자를 발견했을 때 올바른 대처법을 직접 숙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실종은 초기 대응과 지역사회의 촘촘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 훈련과 실종 예방 시스템 구축을 통해 치매 어르신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영광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치매 환자 실종 상황을 가정해 초기 대응부터 발견·인계까지 전 과정을 실전처럼 진행했다. 주민과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치매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 기자

향교에서 '회혼식'… 장성군 국가유산 활용사업 시동

결혼 60주년 부부 1쌍 전통혼례 재현… 선비문화 체험여행 등 연중 운영

장성군이 국가유산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군은 올해 국가유산청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 선정으로 장성향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장성향교 회혼식 기념행사'와 '선비 풍류 전통음악회'를 선보여 이목을 끌었다.

먼저, 부부의 날인 21일에 열린 '장성향교 회혼식'은 결혼 60주년을 맞이한 부부 1쌍과 가족, 하객, 유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가정의 소중함과 효 사상의 가치를 돌아보는 뜻깊은 행사로,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많은 축하와 관심을 받았다.

23일에는 장성 황룡강 음악힐링 축제 본무대에서 '선비의 풍류, 청렴의 고장에서 놀다'를 주제로 전통음악회가 펼쳐졌다. 지역 전통음악인들과 관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우리 소리의 아름다움과 선비정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혼식 기념행사' 사진 /장성군 제공

군은 향후 △문불여장성 1박2일 선비문화 체험여행 △'찾아가는 꼬마 홍길동' △천년 역사 우리고을 지킴이 △'선비의 도시 장성, 세계로 가다' 등 관광객과 학생, 외국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는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심우정 장성군수 권한대행은 "국가유산인 장성향교가 지닌 가치를 널리 알리고, 나아가 전통문화가 현대인의 삶 속에 자연스레 녹아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가유산 활용 공모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